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투명 재정운영 돕는다

전북교육청, 에듀파인 학교회계 컨설팅 시행... 회계분야 점검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투명 재정운영과 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업중단 학생과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등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계는 공·사립학교와 같이 K-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을 사용한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2곳을 비롯해 군산, 정읍, 임실 각 1곳씩 총 5곳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사무직원 이직이 잦아 회계시스템 사용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에듀파인 학교회계 대표 강사로 컨설팅 전담 인력을 구성해 학교별로 1:1 매칭 및 멘토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은 지난 7일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를 시작으로

학교별 신청일에 맞춰 10월 한 달 간 이뤄진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무직원 신규 임용 시 수시 지원도 할 계획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맞춤형 컨설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소외계층이 만학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원 3단체를 비롯한 전주D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전주학부모협의회는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하라”

도내 교원단체, “전주 D초교 보호자의 악성민원에 엄정 대응하라”
전북자치도교육청, 부당한 교육 활동 침해에 강력 대응 나서기로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원 3단체를 비롯한 전주D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전주학부모협의회는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비 마련을 촉구하면서, 특히 전주 D초등학교 보호자의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는 함께 연대해 준 교원단체 및 전주D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1년 C교사 대상 아동학대 소송을 시작으로 무분별한 고소 및 민원제기로 공교육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보호자 A씨와 B씨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 피해 교원이 치유 받고, 전주D초등학교가 정상화되길 희망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교원

사건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A씨는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청에서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감,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A·B 두 학부모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응 행동을 나섰다. /장은성 기자

“의대생 문제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의대 선진화 위한 총장협의회' 차기 공동회장에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고,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포해 교육부와 대학, 의대생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7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비상대책을 발표하는 등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립대와 사립대,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총협은 의대 운영에 관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이다. 경북대 홍원희 총장의 제안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영양교사들의 상담 역량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푸드아트테라피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영양교사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푸드예술심리상담(푸드아트테라피)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푸드아트테라피는 음식(food)과 예술(art), 치유(therapy)의 합성어로 식품을 매개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해 나가는 놀이·교육·상담·치유를 통합한 새로운 상담기법이다.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이 영양수업이나 영양상담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영양상담 기술을 함양하고자 오는 19일까지 영양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총 6회, 30시간에 걸쳐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영양교과연구회인 '푸드예술놀이 영양교과연구회'와 함께 개발한 '내 꿈을 펼쳐라' 책자를



디지털 출판 전문가 양성
전주대, 출판문화진흥원과 협약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 8일 진리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단장과 김준희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주대 재학생의 디지털 출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과정(융합 전공, MD 등) 기획과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전주대 재학생 대상 비교과 특강 및 위타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주)인텔코리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수원 주관 '디지털기반 수업혁신 마스터 코치 양성과정 직무연수'가 열렸다.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원 디지털 기반 수업 전문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인텔의 업무협약 사업인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텔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텔의 디지털 기반 미래 핵심역량 신장 수업 혁신 프로그램인 인텔 SFI(Skills for Innovation)는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도구 기반 수업 혁신에 관심이 있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인텔의 수업 혁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스터 코치를 양성해 우수 수업사례 개발 및 안내 모든 학교에 수업 혁신 프로그램이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인텔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8월 '디지털기반 AI융합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9월에는 (주)인텔코리아를 방문해 '디지털기반 수업혁신 마스터 코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교육부의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운영 교육청 선정을 계기로 교실 수업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전북형 디지털기반 수업혁신 모델이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텔 SFI 스타터 팩을 활용한 수업 설계와 적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연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찾아가는 IB정책 설명회 운영

내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도내 시·군 학부모들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시·군 학부모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찾아가는 IB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IB 프로그램은 IB 분야에서 직접 실시하는 인증 단계(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를 거쳐 수업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전북에서는 올해 용복중학교, 전주야중초등학교, 화산중학교 등 3개 학교가 IB 후보학교 승인을 받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에서는 △IB 프로그램의 개요 △IB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 △IB 학교 바르게 알기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은 교원·학부모·학생 모두가 이해할 때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진다"면서 "전북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의 IB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실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IAP 경진대회 시상식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8일 문화관 5층 세미나실에서 IAP(취업활동계획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0여 개 고등학교에서 158명이 참가해 심사를 거쳐 최종 23명이 선발됐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구직 단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교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특성화고와 일반고가 참여하고 있다. 심사 결과 구재음(한국한방고 3년) 학생이 명확성과 구성도, 개인 소감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에 올랐다. 또한 김재영(덕암정보고 3년) 학생과 서은영(진경여자고 3년) 학생이 우수상을, 김찬희(전북하이텍고 3년) 학생 외 19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구재음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인식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재광 본부장은 "고교생들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